

한국디자인DNA 심화연구

# 분청사기(粉青沙器)

심화연구자 최 성 재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

## CONTENTS

### 제 1부 개요

서문

용어의 정리

### 제 2부 분석

#### 1장 분청사기의 고유성

- 1. 분청사기의 역사·문화적 가치
- 2. 분청사기의 미적 가치

#### 2장 시대적 배경과 재료문화적 특징

- 1. 사회적 배경과 영향
- 2. 재료문화적 배경

#### 3장 분청사기 제작기법의 특징

- 1. 분장기법의 기원
- 2. 소재적 특징
- 3. 제작기법의 특징
- 4. 조형적 특징
- 5. 타 문화유사도자와의 비교

### 제 3부 종합

#### 1장 한국디자인 특성 개념 도출

#### 2장 대표디자인 추천

#### 3장 분청사기 추천

■  
제 1부  
서문

본 연구는 14세기 말부터 16세기 말까지 200여년간 활발히 제작되었다가 자취를 감춘 분청사기에 대한 연구이다. 고려의 화려한 문화 속에 꽂핀 상감청자의 전통을 이어 그 당시 시대상을 고스란히 반영한 분청사기의 자취와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현대적 조형요소를 찾아 분청사기의 고유성을 밝혀내고자 한다. 나아가 분청사기의 고유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 할 수 있는 한국의 디자인 DNA를 발굴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청사기는 한국적인 정서와 미감이 가장 잘 반영된 도자기로 평가 받고 있다. 분청사기가 제작되던 그 당시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시대 사람들은 분청사기의 자유분방한 양식을 수용할 만한 문화적 역량을 가지고 분청사기라는 독특한 양식을 만들어 냈다.

본 연구에서는 분청사기의 근현대 선행 연구자료를 바탕으로한 역사적 고찰과 현대적 평가를 살펴보고 분청사기만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미적가치가 무엇인지를 찾아 보았다. 그리고 분청사기가 생활속에 꽂피운 실용자기로서의 고유적 가치와 자유분방한 제작양식에 따른 한국미의 전형으로 세계화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또한 시대적 상황이 분청사기의 양식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청사기의 사회적 배경과 재료문화적 측면에서 살펴 보았다. 도자기의 제작상황은 시대적인 여건과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생산체계와 방식을 달리하므로 도자양식 형성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사회적 환경에 따른 재료의 수급과 공급이 생산여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재료문화적 여건에 의한 분청사기의 형성과 양식변화에 주목하여 분청사기의 재료문화적 특징을 찾아보았다.

또한 분청사기의 소재와 제작과정, 조형양식에 대하여 타 문화 유사사례와 비교분석을 통해 소재와 제작기법 조형양식면에서 분청사기 만이 가지는 특징적인 요소를 탐색 하였다. 우리나라의 분청사기와 유사한 예를 중국 요주요자기와의 비교를 통해 분청사기의 고유성을 조명하였다.

분청사기는 실용자기로서 민중들 속에 사랑받은 도자기로서 일상용기에서 의례용까지 생활문화 전반에 걸쳐 폭넓은 수요층을 기반으로 다양하게 제작되었다. 이렇게 다양하게 제작되었던 분청사기는 생산규모나 시장의 규모에 비하여 양식화나 규격화된 틀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다. 이것은 제작에 있어

탈 획일화와 비 양식화의 고유성을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독특한 요인들이 생산체계에도 영향을 미쳐서 기물이나 문양이 똑같은 것을 찾아볼 수 없다. 분청사기는 하나하나에 개성이 강하게 반영되어 200여년 간 조선시대를 풍미했다. 이러한 요인들이 분청사기가 탈 획일화에 의해 순수성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다.

또한 분청사기만의 고유적 특징은 재료적인 특성을 들 수 있는데 서로 다른 재료(태토와 회장토)를 조화롭게 동질화시켰다는 것이다. 분청사기는 상감청자 의 제작방식에서 백토분장의 제작방식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재료가 하나로 조화롭게 어울리면서 독특한 미감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서로 다른 재료의 대비와 조화를 통해 만들어 낸 창조적 양식이었다.

분청사기의 전통을 계승한 근현대 도예작가의 예를 통해 우수사례를 제시하였다. 이들 우수사례에서 분청사기를 모티브로 제작된 작가들에 나타난 공통된 양식은 자유분방한 표현양식이었다. 이들의 작품은 형식화된 틀을 거부하고 작가의 개성과 현대미감이 반영된 예이다.

결론으로 한국디자인 특성 개념에 적용할 수 있는 분청사기의 고유성을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다.

1. 회청색 태토와 백색화장토의 조화로움 속에 독특한 재료미 창출
2. 양식과 형식으로 부터의 탈획일화와 자유분방 함 ‘지역적 특색이 반영된 다양한 문화양식 속에 한국적인 미의 원형을 실현’
3. 인간을 위해 제작 되었던 실용자기 : 보편적 실용자기문화의 실현
4. 제작방식에 있어서의 전통의 계승과 새로운 양식의 창조-청자의 제작기법 을 계승, 발전

마지막으로 분청사기의 현대적 조형요소가 가장 잘 반영된 대표작으로는 박지분청사기와 인화분청사기, 철화분청사기를 추천하고자 한다. 박지분청은 당당한 형상과 인상적인 문양과 여백이 어우러져 있다. 서로 다른 재료가 합일되면서 나타나는 독특한 미적 가치가 있다. 또 하나는 인화분청사기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단순하고 자유분방한 형상 위에 문양이 반복적으로 시문되면서 부분과 전체가 합일되는 미감을 지녔다. 실내외 건축과 환경조형영역에까지 확산 가능한 조형요소로 판된되어 추천하게 되었다.

## 용어의 정리

(분청사기의 용어) 분청사기라는 이름은 회청색의 태토위에 백토분장(白土粉粧) 하여 표면이 백색을 띠며 유약을 바른 후 전체 색조가 회청색으로 보여 ‘분장회청사기(粉粧灰青沙器)’라고 고유섭이 명명한데서 유래한다.<sup>1)</sup> 이 말은 회청색의 사기그릇으로 장식을 위해 백토가 상당 부분 분장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지칭한 말이다. 고유섭 선생은 고려의 상감기법은 청자 바탕에 적은 면적을 백토 또는 흑토로 상감해 백토의 비중이 낮지만, 분청의 경우는 백토의 비중이 높아서 마치 흰색으로 전체를 발랐다는 느낌이 들 정도라는 점에 주목해서 백토분장이라는 말을 붙인 것 같다.

그러면 왜 분청자가 아니고 분청사기일까? 사기(沙器)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자기(瓷器) 대신 쓰던 말이었다. 원래 자기를 만드는 자(盞)토는 사(沙)토, 즉 돌가루여서, 사토로 만들어진 그릇이나 자토로 만들어진 그릇이라는 표현이 모두 똑같은 말이었다. 그래서 박자를 백사기라고 쓰기도 했고, 청자를 청사기, 분청자를 분청사기라고 널리 써왔던 것이다. 다만 오늘날 일반적으로 분청자라는 말보다 분청사기라는 말이 더 널리 쓰이고 있기 때문에 명칭을 하나로 통합해서 분청사기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조선 초기 15세기의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분청사기라고 부르고 있는 그릇들을 고려시대의 청자와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모두 청자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12–13세기에 절정을 이루었던 상감청자는 고려 후기 14세기를 지나면서 상당한 변화를 맞게 되며 특히 조선시대초기에는 새로운 왕조의 개혁적 정책에 따라 많은 변화가 진행되게 된다. 분청사기라는 용어의 탄생은 이렇게 변화된 조선시대의 청자를 고려의 것과 구분하여 새로운 이름을 붙일 시대적 배경에 따른 것으로 파악 할 수 있다.

(분청사기의 제작시기) 분청사기는 14세기 상감청자에서 출발하여 16세기 중엽까지 200년간 전국에서 제작 유통 되었다. 분청사기는 상감청자에서 변모하여 분청다운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면서 분청의 시대가 지속되었다. 물론 그의 전반부는 분청의 중심시대라고 말할 수 있지만 후반부는 백자가 중심으로 등장하고 분청은 중심에서 벗어나는 쇠퇴와 소멸의 시기였다. 백자가 중심으로 등장하는 시기를 고려한다면 실제 분청제작의 중심시대는 불과 육십년 내외에 지나지 않는 짧은 기간이었다. 결국 백자의 선호증가와 흰색 선호사상이 백자를 모방한 분장기법으로 변화를 추구하면서 16세기 이후 백자화 되면서 자연

1) 고유섭, 고려도자와 이조도자, 한국미술사급미학논고, 통문관, 1963, 193쪽

소멸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분청사기의 분류) 분청사기는 백토분장을 어떻게 구사하느냐에 따라 상감분청사기, 인화분청사기, 박지분청사기, 음각(조화)분청사기, 철화분청사기, 귀얄분청사기, 담금(덤병)분청사기로 구분된다.<sup>2)</sup>

분청사기를 시기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시기	비고
전기 (발생기)	1360년경~1420년경	1360~1390년경에 상감청자의 쇠퇴기, S자형병 출현, 암녹색.
		1390~1420년경에 상감청자의 상감무늬의 퇴화된 여운과 그 변모, 분청사기 인화기법의 발생기.
중기 (발전기)	1420년경~1480년경	1420~1450년경에 기법(선상감, 면상감, 인화, 박지, 음각)의 다양한 발전, 분청사기의 특질이 뚜렷해짐, 태토 밝아짐, 유약투명, 백자 생산.
		1450~1480년경에 인화기법 대접무늬의 구도 완성 및 절정, 귀얄기법, 광주 분원 성립, 청화백자의 발생과 발전.
후기 (쇠퇴기)	1480년경~1540년경	상감, 인화기법 쇠퇴, 철화기법의 발생과 발전(지역 특색 뚜렷해짐), 귀얄, 담금 분장기법 성행, 표면 백자화가 뚜렷해짐.
말기 (소멸기)	1540년경~1600년경	귀얄, 담금분장 기법이 서서히 백자에 흡수되어 소멸함 <sup>3)</sup>

2) 강경숙, 한국도자사의 연구, SIGONGART, 2007, 131쪽

3) 강경숙, 한국도자사의 연구, SIGONGART, 2007, 137-138쪽

■  
제 2부  
분석

## 1장. 분청사기의 고유성(Value)

### 1\_ 분청사기의 역사 · 문화적 가치

분청사기는 14세기 말부터 16세기 말까지 200여년간 활발히 제작되고 소비되면서 실용적 자기문화를 형성하였다. 그 당시 청자는 특수계층을 위해 제작되었다. 여말선초 정치 · 사회적 변화는 사회전반으로 다양한 계층이 사용하는 보편적인 자기문화를 요구하였고 분청사기는 이러한 시대적 환경 속에서 태어났다. 고려시대는 불교의식을 위한 의식용기와 왕실과 귀족의 기호품으로 청자가 쓰였다면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제례용기로 분청사기가 쓰였으며 값싸고 제작이 용이하였기에 분청사기는 일상생활용기로 그 쓰임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분청사기의 제작으로 비로소 도자기가 일상 생활용기로 널리 쓰이기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분청사기의 제작소도 지방 곳곳에 분포되어 있을 만큼 전국 각지에서 분청이 대량생산되었다.<sup>4)</sup> 분청사기의 기형은 실용적으로 변화되어 기물의 크기는 커지고, 기벽은 두꺼워져 견고하여 안정된 형태로 제작되었다. 장식기법은 장식적인 기교를 최소화, 간략화되는 경향으로 변모되었다. 이로서 분청사기가 생활 속에 실용자기로 태어 날 수 있었다.

### 2\_ 분청사기의 미적 가치

한국적인 아름다움, 한국미의 원형을 말하고자 할 때 많은 미술사가들은 '粉青沙器'에서 그 해답을 찾는다. 정돈되지 않은 수더분함, 그러면서도 박진감 넘치는 자유분방함을 느낄 수 있다. 익살스러우면서도 솔직하고 대범하게 표현된 작품은 마치 현대의 추상화를 보는듯한 묘미를 가져다 주기까지 한다. 특히 기물에 시문된 문양을 살펴보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그리기보다는 사물을 보고 느낌 그대로를 표현하여 그런 것이 대부분이다. 분청사기의 특성은 이성적이고 명료한 결과보다 직관적이고 순정적 과정을 중시하는 한국인의 심성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확실히 한국인들은 차가운 이성보다는 따스한 정을 선호하고 획일화 된 틀보다는 역동적인 생명력을 중시한다. 분청사기는 바로 획일적인 틀을 거부하고 불완전함 속에서 생동하는 생명력을 포착하여 한다는 점에서 한국인의 기질과 상통한다.

고려말 조선 초에 걸쳐 정치의 불안, 관기의 문란, 신분층의 와해, 새로운

4) 나선화, 도기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 도자기의 흐름, 재단법인세계도자엑스포, 2004, 113-114

지배세력의 성장, 왜적의 침입 등으로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관요의 기능이 마비됨에 따라 이들 기술자들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상감청자를 제작하기에 이른다. 이들은 국가의 규제 없이 자유로운 제작환경에 따라 양식에 구애 됨이 없이 활달하고 구김살 없는 자유분방한 도자기를 제작하였다. 어려운 환경속에서 먹고살기 위해 도자기를 구워야 했던 도공들은 흙을 가릴 처지가 못 되었다. 유약도 질이 낮았고 뺄감도 부족했고 가마도 번듯하게 만들 형편이 아니기에 도자기는 제멋대로 두워졌다. 그래서 분청사기는 규칙도 없이 마을에 따라 도공의 취향에 따라 다양하고 자유롭게 만들어졌다.<sup>5)</sup>

분청사기는 각 지방의 도공들이 자기들이 개발한 방식에 의하여 자신들의 정서를 반영하면서 제작했다. 그림 솜씨가 모자라 서툴면 서툰 대로 개의치 않고 그려 넣었다. 누가 정갈하게 다듬으라고 지시하거나 간섭하는 사람도 없었다. 이토록 조형의 자유를 누린 서민 공예는 역사상 다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sup>6)</sup>

조선시대 초기에 이런 자유로운 생각을 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었던 시대였기에 흙만 있다면 어떤 것도 멋지게 변신할 수 있었다. 분청사기는 조선시대가 자유로운 시대였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하겠다.<sup>7)</sup> 그러므로 분청사기는 관의 영향을 받아 정해진 양식에 의해 만들어진 청자와 달리 기형과 문양양식이 자유스럽다. 분청사기의 자유분방한 조형미와 민예적인 문양의 특징 때문에 ‘가장 한국적인 미를 간직한 민족의 자기’로 미술사가들에 의해 오래전부터 평가되어왔다. 표현기량에 구애받지 않은 자유스러움, 천진함, 소박함, 순수함이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의 숨결이 살아 숨 쉼을 느끼게 한다. 대부분은 아니나 간혹 사실적 문양을 대담하게 생략하고 단순화시켜 수더분하지만 매우 현대적이라 할 만큼 도공의 깊고 드높은 조형적 역량을 찾아 볼 수 있다.

## 2장. 시대적 배경과 재료문화적 특징

### 1\_사회적 배경과 영향

(고려말 상감청자의 쇠퇴) 고려 말기의 상감청자는 고려시대 후기 13-14세기

5) 고진숙, 역사를 담은 도자기, 한겨레아이들, 2008, 106쪽

6) 유흥준, 윤용이, 알기쉬운 한국 도자사, 학고재, 2002, 37쪽

7) 고진숙, 역사를 담은 도자기, 한겨레아이들, 2008, 119쪽

를 지나면서 아주 느린 속도이지만 부분적으로 모습이 변하면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이 시기는 상감청자에 대한 사회일반의 이해가 점점 높아지는 한편 현실적 기능도 강조되면서 다량 생산되는 경향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고려시대 말기인 14세기가 되면 상감청자는 더 이상 귀족적으로 우아하다거나 세련됨과는 다른 방향으로 제작되고 있었다. 소량의 정예품 생산에서 다량생산 되면서 전반적으로 조질화되거나 유태색도 짙은 암갈색으로 변하고 문양이 간략해지고 밀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물론 한편에서 유태의 질이 낮아지는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문양을 세분하여 전체를 복잡하고 가득차게 상감으로 새겨 넣음으로써 외관을 호화스럽게 장식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한 편에서는 문양 요소들을 양식화하고 규격화시켜 마치 연속문양처럼 반복하여 전체를 일률적으로 조직화시킨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향들은 상감청자의 질이 떨어지고 다량생산과 실용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분청사기가 성립되는 사회적 배경)** 고려 후기인 14세기의 사회변화는 고려청자가 어떤 이유로 변하여 분청사기로 이행되었는지를 짐작케 한다. 고려 후기 14세기에 이르면 신진사대부<sup>8)</sup>들이 등장하게 된다. 문신, 무신 귀족이 이끌어 가던 세계에서 14세기 충선왕 이후 공민왕에 이르면 사대부라고 불리는 선비들이 대거 등장하게 된다. 이들 신진사대부가 고려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주체 세력으로 등장함에 따라 사회가 추구하는 관념이 바뀌게 된다. 오늘날 잘 알려진 정몽주, 정도전, 이색 등의 학자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그들은 유학의 가르침에 따라 세계를 보았다. 중국 원나라를 통해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유학의 가르침은 내세보다는 현세적인 부분에 즉 현실에서 출세하고 잘사는 아주 현실적인 부분에 치중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릇 역시 현실의 생활에 널리 쓰여 질 수 있는 그릇이 필요했지 무덤에 묻기 위한 그릇이 필요하지 않았다.

**(성리학의 실용주의(생재론)에 의한 실생활용기로의 확산)** 공민왕과 신진사대부는 개혁정치를 펴면서 대표적인 원나라 추종세력과 몇몇 권문세족을 몰아내었다. 그들에게 땅을 빼겼던 사람은 땅을 다시 찾았고, 그들의 노비가 되었던 양인들은 신분을 되찾았다. 원나라의 간섭을 받던 시대도 막을 내렸으며 원나라에 공물로 바치며 근근이 유지되던 청자의 새대도 끝이 났다. 대신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신진사대부들이 새로운 도자기를 사들인 주인공으로 떠올랐다.<sup>9)</sup>

8) 성리학을 정신적 기반으로 하는 지방의 선비 출신, 농업 발달로 인해 경제력도 갖춘 종소 지역 계층

9) 고진숙, 역사를 담은 도자기, 한겨레아이들, 2008, 101-102쪽

신진사대부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면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분청사기는 불과 100년도 못 되어 온 나라의 도자기가 되었다. 고려시대에 불과 41개에 불과하던 자기소는 폭발적으로 늘어나 세종시대에는 무려 324개나 되었다.

분청사기는 신진사대부들이 성리학자들의 도자기이었다. 성리학자들은 철두철미한 현실주의자인 유학자들이기 때문에 현실 생활에 필요한 진솔한 그릇을 원했다. 그래서 분청사기는 조선시대 사람들의 삶의 정취를 물씬 자아내는 정서를 담아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정신적 가치는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었으므로 분청사기가 지극히 삶의 모습을 담아내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유교사상의 영향)** 유교적 사상체계는 특히 조선시대에 접어들면서 선비, 양반 계급을 중심으로 한 생활 전반에 스며들었다. 또한 학문과 도덕을 근간으로 고도의 품격과 절제, 금욕을 중요시하는 유교적 특징에 기반을 두고 인위적인 것과 화려함, 장식적인 미감을 배제하였다. 색채는 백색을 선호하면서 선비의 고결한 품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점은 백색이나 자연색조 그대로를 무작위적으로 수용하고 추구하려는 인식 속에 있어서 도가나 불교에서 볼 수 없는 고도의 품격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즉 도가의 무위자연이나 불교의 무아 개념에서 유교는 도덕과 윤리를 바탕으로 하는 천인의 조화(天人調和)라는 특징을 보인다.

천인조화(天人調和)는 인간을 위한 인간의 질서규범 위에서 비롯되는 조화이기도 하지만 공자의 繪事後素 정신처럼 그 바탕의 평범무욕의 자기절제를 근간으로 한다. 그것은 조형의식에 있어서 바로 또 다른 성격의 무작위로 반영되는데 색채개념으로서는 인위적으로 색을 없앰으로써 백색을 애호하는 원인과 연결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교적 측면에서의 繪事後素와 같은 사상은 의도적인 작위를 거부하고 그야말로 스스로 그러한 평범의 자연을 추구해 왔던 우리 선조들의 조형의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繪事後素는 그림 그리는 일은 흔 바탕이 있은 이후에 한다는 말로 기본을 중요시 하라는 뜻이다. 유교의 무작위는 품격의 윤리를 근간으로 한 절제된 표상으로서 주로 선비, 양반들의 문화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점진적으로 서민계층에서도 연결되어 기층문화의 성격을 형성하였다. 이는 한국미술의 주요 특징인 자연미감, 백색애호, 시, 서, 화 삼절(三絶)의 선비적 미감 등이 형성되는 데도 밀접하게 연결 된다.

**(신분제도의 변화)** 14세기에 사회질서 체제가 문란해지면서 신분제도에 변화가 생긴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즉 당시 정치, 경제면에서 기득권 세력

이었던 친원 성향의 권문세족이 사적 이익을 위해 토지를 겸병하고 대농장을 소유하는 한편 각종 세금을 포탈하여 국가 경제는 극도로 궁핍한 상태였다. 물론 공민왕 이후 신진사대부들이 중앙관리로 등장하면서 각종 개혁정치를 주장 하지만 이미 문란해진 사회체제를 바로 세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런 혼란한 틈을 타서 신분계층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특히 낮은 계층에서 신분이 향상되는 경우가 두드러졌다. 이는 전란으로 인한 호적의 소실, 행정 공백 등의 상황에서 천민이 양민으로 둔갑하거나 심지어 벼슬을 갖는 경우까지 생겨나게 되었다. 또한 공민왕 3년에는 군사상의 공적을 세운 자에게 벼슬을 주는 첨설직 제도가 생겨나 벼슬을 하지 않은 선비나 향사(지방선비)층이 벼슬을 갖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같은 시기인 공민왕 3년(1391년)에는 지방 행정 조직인 군현제의 개편으로 11세기 초에 93개였던 주현이 모두 360개로 4배정도 증가하게 된다. 사회 전반에서 양민과 관청의 수적 증가는 실제적 혹은 잠재적 도자기의 수요자로 등장하게 되면서 보다 많은 자기의 공급이 요구되었다.

**(왜구의 침법으로 인한 관요의 폐쇄와 가마의 전국 확산)** 14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왜구들의 침법으로 약 40여년간 우리나라의 해안 일대 바닷가 마을을 공략했다. 당시 고려에는 각 지역에서 쌀을 세금으로 국가에 바치는 조창이라는 창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뱃길로 개경까지 쌀을 운반하도록 되어 있었다. 처음 왜구들은 배가 지나가는 길목에 숨어서 습격했지만 운반로를 육로로 바꾸자 차츰 해안 일대까지 쳐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들이 한참 극성을 부릴 때는 바닷가 50리 안쪽에는 사람이 살지 못했다고 할 정도였다. 그래서 강진이나 부안 같은 바닷가 마을은 수십 번씩 약탈을 당해 불행하게도 14세기 후반 이후로 이어지는 가마가 없다. 이미 고려 초부터 도자기를 제작하기 시작했고 이상적인 도자제작 환경을 갖춘 그 곳에 가마가 그 이후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런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도공들은 내륙으로 피신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런 상황들은 새롭게 도자기를 실용화하기를 원하는 당시 신홍세력인 사대부들의 새로운 정책과 어우러져서 도자기마가 전국 각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각 지역에서 독특한 분청사기를 만들기 시작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인구 증가에 의한 소비시장의 확대)** 농업의 발전<sup>10)</sup>으로 인하여 인구가 증가했다. 인구의 증가와 경제 규모의 확대, 생활문화 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자연히 실생활용기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되었다. 이로 인해 분청사기는 대중이

10) 공민왕-세종 100년동안 농업생산력 5배 증가했다. 이양법의 도입은 쌀생산의 혁명을 가져왔다.

널이 사용하면서 일상용에서 의례용까지 기능이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도자기의 식기 전용의 필요성과 사용 장려) 고려는 13세기 후반부터 여섯 차례에 걸친 몽고의 침입과 대몽항쟁, 고려와 원나라 연합군의 일본 정벌 등으로 금속이 그릇 보다는 군수물자의 재료로 필요했고, 원나라에 공물로 바치던 동(銅)의 양이 상당량에 이르렀기 때문에 동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었다. 14세기 요업이 전국으로 확산된 이유 중에는 공양왕 3년(1391) 금속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자기와 목기를 사용하여 습속을 개혁하고자 한 기록이 주목된다.<sup>11)</sup>

14세기 말기 공양왕(恭讓王) 3년(1391) 방사량(房士良)은 상소문에서 “유동(鎰銅)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건이므로 원하건대 이제부터는 유동기(鎰銅器)를 금지하고 자기나 목기로 전용하여(專用盞木) 풍습을 개혁하소서” <고려사(高麗史)>라고 하여 보다 넓은 산업적 인식에서 도자기의 사용을 주장하였다.

이상의 문헌상의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기명은 11·12세기의 청동기 중심에서 점차적으로 도자기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14세기 전반에는 청동기와 도자기가 혼용되다가 14세기 말기에는 도자기 중심으로 전환되고 청동기와 동기의 사용은 금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조선초에 도자기가 실용화 되었다. 당시 왕실 뿐 아니라 양반계층 역시도 백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는데 엄격한 신분사회에서 왕실의 권위를 강화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백자를 왕실용으로 한정하고 사대부나 일반 백성을 분청사기를 사용하게 하여 신분의 차등을 나타나게 하였다. 세종 대 이후 사대부나 일반 백성 사이에서도 백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세조 12년에 “백자는 진상품 이외에 공사처에서 사용을 금하고 사사로이 만들거나 사는 사람 모두 벌을 내린다고 했고 백토를 남용하지 말고 생산지를 빠짐없이 기입하여 공조와 승정원에 비치하라” 는 명을 내려 백자는 물론 원료인 백토까지 엄격히 규제하고 있었다. 결국 유기의 사용은 물론 백자의 사용 역시 엄격히 금해져 있는 상황에서 분청사기는 15세기에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대량생산되어 청자나 백자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도자문화를 성립하였다.

고려말 금속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대신 자기와 목기(木器)를 전용하도록 한 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이것은 도자기가 조선시대의 중요한 산업으로 발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도자기 제작지가 전국으로

---

11) 고려사, 志, 卷 第39, 형법 2, 禁令條

확산되어 간 현상도 이러한 정황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생활에 직접 쓰일 수 있는 생활자기의 등장이 필요했던 그 당시 상황은 보편화된 도자기의 본격적인 실용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14세기 이후 고려 충선왕(忠宣王) ~ 공민왕(恭愍王)시기 왕권 강화와 신진사대부의 등장으로 고려의 통치이념의 변화와 조선 초 유교적인 사회의 실생활을 중시하는 풍조, 생활자기의 필요성 증대 등은 도자기의 산업화(분청사기의 등장)의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민간제작에 따른 장인의 개성 반영)** 당대에 유행하던 도자기에는 그 시대의 정치, 경제, 문화 등 한 사회의 여러 가지 단면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데, 시기와 지역에 따라서 각기 다른 개성과 아름다움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조선시대에 접어들면서 보다 많은 민중이 참여하는 사회로 들어서면서 도자기의 수요도 많아졌다. 관료의 통제에서 벗어나면서부터 장인의 개성이 더욱더 많이 반영되어 다양하고 풍성한 분청사기로 발전하였다.

정선되고 질좋은 흙으로 만들어야 했던 청자는 고려사회에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분청사기는 그렇지 않았다. 생계를 위해 도자기를 구워야 했던 도공들은 흙을 가릴 쳐지가 못 되었으며, 유약의 원료를 비롯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장인의 개인의 역량에 따라 제작되었다. 그러므로 분청사기는 일정한 규칙도 없이 지역에 따라 다양하고 자유로운 양식을 담아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상용기로 제작된 분청사기는 시대를 반영하여 민예적인 특징을 가장 잘 나타냈다. 그러므로 분청사기는 우연한 시대 산물이라기보다는 당시의 사회문화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 2\_재료문화적 배경

**(분청사기의 생산체계의 변화)** 고려말, 어지러웠던 나라정세와 왜구의 잦은 침입으로 전라도 지역에 밀집되었던 청자요지는 파괴되었고 도공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분청사기 요지는 해안 뿐 아니라 내륙지방까지 고루 분포되어있다. 현재까지 조사된 분청사기 가마는 남한에서 약 110개 지역에 걸쳐 220여기에 달하며 발굴 조사된 것으로는 전남 광주 무등사 충효동가마, 충남 공주 계룡산가마, 대전 보문산가마 등이 있다.

제작공정에 있어서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유색첨토를 사용하여 백토분장하고 투명한 유약을 빌라 소성하였기에 고려청자보다 그 생산가가 낮은 경제적

인 도자기를 만들 수 있었다. 즉 제작이 까다롭지 않은 중국 북방의 자주요 계통의 자기를 선택하여 조선의 근검, 청빈한 생활철학을 반영하였다. 그 결과로 한국도자 기술사에 있어서 도기와 자기의 결합체와도 같은 새로운 자기인 분청사기를 개발하게 되었으며 차가운 느낌의 청자와는 다른 따스한 손길이 느껴지는 자기를 탄생시키게 되었다.<sup>12)</sup> 고려시대 관요의 분업화 되었던 생산 체계와는 달리 장인을 중심으로 소규모 영세한 생산체계였다. 대부분의 공정을 장인 중심으로 전부 소화해 내야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이런 작업환경은 도자기를 더욱 더 깊이 있게 만드는 한 요인으로 작용 하였다. 예를 들면 흙의 원리를 알고 직접 만들고 이를 직접 불에 소성하는 전 공정을 거쳐 완성한 작품에는 분청사기 제작자의 깊이 있는 감성으로 만들어낸 품격이 있다.

**(선진기술의 백자 제작 환경과의 관계)** 15세기 전·후반경 분청사기는 중앙관 청과 사회지도층의 중심적인 자기이였다. 왕실에서는 오로지 백자만을 사용하였으며 백자는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차원의 특화된 자기였다. 오로지 왕실에서만 사용하기 위해 제작 되었던 백자가 관요에서 만들어지면서 조선초기에 약 5~60년간 전국에서 폭발적으로 제작된 분청사기의 생산에 변화를 주게 된다. 이후 분청사기는 민수용으로 제작되다가 백자화 되면서 임진왜란 이전에 소멸된다.

**(전통기술의 산물)** 분청사기는 청자의 전통을 계승한 도자기의 양식으로 볼 수 있다. 분청사기는 태토와 유약, 장식기법을 포함한 모든 요소가 고려시대의 청자 계통에 속하지만 형태와 문양을 표현하는 방식은 청자와 분명히 구분되고 있다.<sup>13)</sup> 분청사기는 분장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전과 달라진 도자제작 환경의 벽을 뛰어 넘었다.<sup>14)</sup> 불을 다루는 기술 태토의 정선기술, 장식기술의 숙련성에 바탕에 두고 생산되었다. 다만 시대적인 요인, 원료수급, 문화적인 요인에 의해서 새롭게 변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 새로운 양식으로 변모한 양식이었다.

고려말 청자에서 출발한 분청사기는 그릇 모양에 있어서도 청자의 맥이 그대로 이어져서 매병이라던지 입이 나풀처럼 벌어지고 목이 길며 몸체가 불룩한 병 등이 다수 제작 되었다. 그러나 대형화되거나 실용성을 강조한 형태가 많아져서, 귀족적인 취향을 반영하여 세련된 곡선미를 나타내는 고려청자의 기형과는 다른 자유롭고 활달한 조형미를 창출해 내었다. 고려청자가 특수계층에 의해 사랑받았던 것에 대해 조선시대의 도자기는 사용계층에 따른 질적 차이

12) 나선화, 도기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 도자기의 흐름, 재단법인세계도자엑스포, 2004, 112

13) 남기명, 우리도자이야기, 재단법인세계도자엑스포, 2004, 59쪽

14) 윤용이, 우리 옛 도자기의 아름다움, 돌베개, 2007, 248쪽

는 보이지만, 왕실에서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보편화되었다. 그리하여 관청용의 고급그릇은 물론 일반용의 막그릇이 다량으로 생산되었다.

**(소재, 물성적 측면에서의 지역적 특징)** 우리나라의 도자산업은 사회 환경적 변화에 따라 생산체계의 변화를 겪었다. 분청사기는 도자기원료의 엄격한 수급과 관리가 어려움에 따라 태토의 조질화가 동반된 지역적인 특색을 나타낸다. 분청사기는 14세기 고려 말의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불안한 시대적 정세 속에서 출발한다. 혼란한 시대의 영향으로 고려청자는 그 정형을 잃어가고 있을 때 국가의 보호와 배려를 받지 못한 기술자들이 전국으로 생계를 위해 흘러짐으로서 고려(상감)청자는 점차 퇴화하는 반면, 분청 사기는 어떠한 조건에도 구애받지 않고 전국 도처에서 개인들에 의해 제작되기 시작하였다. 14세기경 강진에서 제작된 상감청자들이 조금씩 퇴화과정을 거치면서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 도처로 퍼져나가 소규모의 가마를 만들어 도자기 제조를 시작하는데, 이러한 가마들에서 분청사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인화분청은 청자와는 다른 차원의 우수한 태토와 양질의 투명한 유약을 써서 더 견고하고 실용적으로 만들고 문양도 정성스럽게 새겨 넣은 것이다. 특히 이들 가운데 일부는 국가에 공납하거나 상층계급용으로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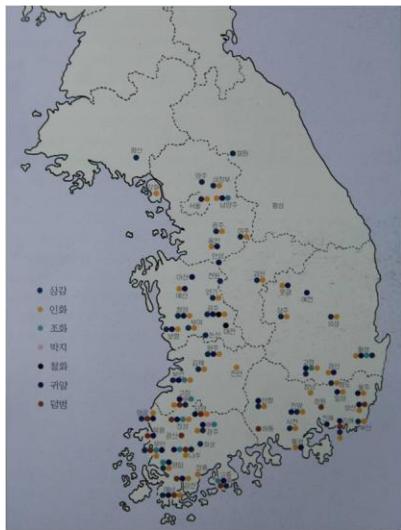
분장분청계통에서도 일부 박지, 조화, 철화 분청을 제작하던 가마는 인화분청과 같이 중앙의 감독 아래 우수한 질을 생산하였으나, 그 외의 인화, 박지, 조화, 특히 귀얄, 덤벙분청을 만드는 작은 가마들은 상대적으로 질도 낮으며 전라도와 충청도에 제한되어 있어서 지방에 따라 특성화된 경향을 볼 수 있다.<sup>15)</sup>

분청사기 이전의 상감청자는 서민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분청사기는 개인들이 국가가 운영하는 관요체제에서 벗어나 도자기를 제조하였으므로 실생활에 필요한 검소한 것으로 변화하며 생활자기로 대중화되고 다량생산 된다. 따라서 성격이 지극히 소박하고 문양, 기형 등 표현에 있어 그 어느 자기보다 자유로운 특색을 갖는다. 분청사기는 상감청자의 전통 위에서 있었지만 같은 유형의 상감청자가 아니다. 다양하게 변화된 재료문화적 환경, 기술자들의 의식변화, 수요층의 다변화 등의 요인으로 자유로운 분청사기가 제작되었다.

**(분청사기의 지방적 특성)** 분청사기의 지방적 특성은 우선 지리적인 문제에 기

15) 남기명, 우리도자이야기, 재단법인세계도자엑스포, 2004, 60쪽

인한다고 볼 수 있다. 큰 산맥이나 강에 의해 나뉘어진 지역들은 풍속 등 각기 고유한 향토색을 가졌다. 분청사기는 크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로 대별될 수 있는데 각 지방적 특색을 살펴보면, 경상도는 과거 신라의 중심이었고 고려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고려 김부식이 신라의 정통성을 주장한 것처럼 신라지방을 중요시하였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와서는 영남은 유학의 큰 근거지여서 요즘으로 치면 여당의 세력과 학문의 중추적 역할을 한 곳이다.



(그림1) 조선시대 분청사기기마 분포도

경상도에서 제작된 분청사기는 인화문이 주를 이루는데, 인화문을 아주 촘촘하게 찍어서 흐트러지지 않는 면모를 보이며, 또한 다른 지방과 달리 처음부터 인화문을 많이 제작하고 인화문으로서 백자에 보다 빨리 접근한 것이 경상도 분청사기의 특징이다.

전라도는 일찍이 백제가 멸망하고부터 중심세력에서 멀어져 변방지역같이 되었지만, 백제의 문화는 신라보다도 우수한 문화였고, 중국 것을 일찍부터 받아들여서 선진문화를 자기화한 특색이 있었다. 그러므로 전라도 분청사기는 는 형식'에 얹매이지 않고, 예술의 자궁심을 가지는 자기의 세계를 따로 구축하였다 보여지며, 실제로 분청사기의 박지문, 조화문 같은 것은 거의가 전라도 지역에서 우수한 것이 나온다.

충청도는 서울과 가까운데, 그 중간에 위치하면서 자기라는 것을 확고히 갖고 있다. 그래서 계룡산기마를 보면 제도권과 가까운 이유로 인화문이 나오고, 귀얄도 많지만 조화, 박지는 드물고, 대신에 새로운 철화문(鐵畫紋)이 나온다. 특히 계룡산 지역의 철분이 많은 철광석을 가공하여 철화 안료로 만들어 깊이 있는 색감의 장식을 한 점이 돋보인다. 인화문(印花文)은 찍는 것이고, 박지문(剥地文)은 칼로 하는 것이지만 계룡산은 붓으로 하는 것이다. 붓놀림, 이것은 계룡산이 서울에서 가깝고 또 영호남에서 올라가는 길목이란 점에서 붓놀림은 서울하고 영남에서 배웠고, 자유분방한 맛은 호남에서 배웠다고 여겨지며, 그래서 그 삼각점에서 생겨난 것이 계룡산 분청사기인 것이다.

14세기까지의 분청사기는 상감청자를 계승하여 그 조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15세기 중기에 이르러 독창적으로 새로운 변모를 하면서 수요자층이 확대되어 다량 생산체계에 들어선다. 고려말기에 상감청자는 20여개소의 요지에 불과했지만 조선 전기에 분청사기의 요지는 전국으로 확산되어 200여 개소에 이르고 가마터도 전국에서 발견된다. 가마터의 흔적과 이러한 가마터에서 수집된 도편으로 사기의 제작 시기와 제작지별 성행하던 기법을 파악할 수 있다.

서울에서 발견된 분청사기의 가마터는 도봉동, 우이동 일대에 흩어져 있다. 서울의 분청사기는 14세기 말의 성격을 띠어 상감기법의 선무늬와 덩굴무늬가 있고 유색을 회청이며 고려청자의 여운을 많이 띤다. 태토가 비교적 정선되고 그릇 벽이 두껍고 안으로 휘어져있다. 유색은 고려말기에 흔히 보이는 어두운 암록색을 띤다.

경기에서는 문자가 상감된 사기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관청상납용 그릇도 제작된 것으로 추측된다. 경기도 광주에서 1425년~ 1440년경 제작된 인화기법의 분청사기가 다량 발견된다. 15세기 후반에 경기도 광주시에 백자관요가 운영되면서 귀얄이나 덤벙기법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백자 생산이 이행된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인화기법은 많은 데 비해 귀얄기법이나 덤벙기법의 분청사기는 극히 드물다.

충청도 가산리, 중흘리, 청라리, 쌍류리, 기룡리, 학봉리 등지에서 도편이 발견되는 등 대부분이 공주시에서 발견된다. 공주시 가산리 가마터에서는 인화기법의 도편이 수집되었고 그 제작시기를 1420년 전후로 추정한다. 중흘리 가마터에서는 그릇 내부 바닥에 ‘金’ , ‘司’라는 글자가 새겨진 것으로 보아 국가상납 용일 것이라고 추측한다. 공주시 학봉리에는 15세기 후반부터 16세기 전반까지 60여년간 제작이 계속 되던 가마터가 존재한다. 충청도에서는 철화로 꾸밈이 없이 해학적이면서도 힘이 넘치는 문양을 그린 철화분청사기가 한 시대를 풍미한다.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귀얄이나 덤벙기법의 성행 없이 15세기 후반 이후에 백자로 바로 이행되는 특징을 보인다.

전라남도의 광주시 충효동, 고흥군 군대리에서 도편이 수집되고 전라북도 부안군 우동리, 고창군 수동리와 용산리를 중심으로 가마터가 발견된다. 충효동에서 발견된 도편에서는 인화, 상감, 조화, 박지, 귀얄 등 모든 기법이 발견된다. 우동리에서도 모든 기종의 그릇들이 제작되었고, 물고기, 모란, 연화, 우점(雨點紋) 등이 주종을 이룬다. 전라도 분청자기는 틀에 얹매이지 않고 생동감이 넘치는 다채로운 문양으로 박지분청사기와 조화분청사기가 대표적이다.

경상남도 진주시, 사천시, 밀양시, 양산시, 산청군과 경상북도 경주, 고령,

상주의 가마터에서 도편이 발견되었다. 이 지역에서 발견된 사기는 귀얄분청사기로 유조는 밝은 회색의 정선된 경질 태토에 청자유가 시유된 것으로 보아 15세기부터 16세기 전반 경까지 분청사기가 제작된 것으로 본다. 분청사기를 만들었던 장인들은 제작지의 주변을 태토를 이용하여 태토의 특성과 주변의 원료를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는 분청사기를 제작하였다.

**(분청사기의 물성)** 청자를 만들던 도공들이 전국으로 흩어지면서 그릇을 만들었다. 이들 도공들은 청자를 만드는 기법 그대로 그릇을 만들었다. 청자는 어디서든지 만들 수 있었다. 청자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은 가마, 태토, 유약뿐이었다. 가마는 언덕진 능선이면 다 만들 수 있고, 태토는 전국 어디에나 있고, 유약은 나무를 태운 잣물이니까 그냥 만들면 되었다. 다만 질이 나쁘다. 좋은 흙, 좋은 유약이 아니었고 또 제작 여건이 청자 때처럼 국가가 지원해주는 일이 없었으니 어려웠다.<sup>16)</sup> 그래서 이들은 그 칙칙한 빛깔을 가리기 위해 분장을 하게 된다.

분청사기는 서로 다른 재료<sup>17)</sup>가 어우러져 일체화되는 독특한 양식을 자아낸다. 철분이 다량 함유된 암록색 태토와 백색의 화장토가 하나가 되면서 만들어내는 독특한 미감이 나타난다. 이 때 화장토의 농담에 따라 태토색이 배어나와 깊이 있는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러한 기법을 통하여 다양한 장식성과 독특한 질감을 특징으로 하는 분청사기가 태어나게 된다. 저가의 원료로 만든 자기를 백토로 분장하면서 고부가가치의 분청사기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

16) 유흥준, 윤용이, 알기쉬운 한국 도자사, 학고재, 2002, 33쪽

17) 거칠고 색상이 조잡한 태토와 순백색의 백색태토

### 3장. 분청사기 제작기법의 특징

#### 1\_분장기법의 기원

분청사기의 상감기법

			
고려나전칠기염주합 12세기	청동은입사보상당초봉황 문합, 12세기	청자상감모란문항아리 13세기	분청상감목단문합 조선 15세기

분청사기의 인화기법

			
격지문토기쌍이호 철기시대	운암문토기골호 통일신라	청자상감운학문표형주자 13세기	분청인화국화문개부호 15세기

분청사기의 조화기법

			
빗살무늬토기 신석기시대	토기동물문장경호 신라 5-6세기	청자음각연화당초문매병 고려 11세기	분청조화모란문항아리 조선 15후-16세기

### 분청사기의 박지기법

백유흑화모란문병 북송 11-12세기	청자역상감모란당초문 병, 고려 12세기	분청상감모란문항아리 조선 14-15세기	분청박지모란절지문항아리 조선 15세기

### 분청사기의 귀얄기법

토기적색마연항아리 철기시대	당삼채 중국 당 8세기	청자퇴화음각문주전자 고려 12세기	분청조회모란문병 조선 16세기

## 2\_소재적 특징

분청사기를 만들던 시대를 생각해보면 이렇다. 작은 마을이 질 좋은 흙으로 분청사기를 만들기는 어려웠다. 설령 질 좋은 흙이 있더라도 세금인 공물로 바치고 나면 결국은 다시 질이 떨어지는 것들만 남게된다. 그래서 마을에서 쓰는 분청사기를 만드는 흙은 질이 더 안 좋았다. 절묘한 기법의 분청사기를 만들어 낸 것이 이런 작은 마을에서부터 출발했다.<sup>18)</sup>그러므로 질이 좋지 않은 원료를 선별하고 이를 가공하여 솜씨 있게 분청사기를 만들었던 것이다. 분청사기는 정선된 원료로 만든 태토 위에 화장토를 바를 경우 분청사기의 색상과 질감이

18) 고진숙, 역사를 담은 도자기, 한겨레아이들, 2008, 118쪽

배어 나오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가공이 덜된 생원료 위에 정선된 백토를 발라야만 분청사기 고유의 멋스러움을 나타낸다. 생원료에 백토를 발라야지 만 깊이감이 더해진다. 분청사기의 특징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인으로 불을 이용한 소성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소성방법과 가마형색에 따라 소성된 기물의 결과가 판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 3\_제작기법의 특징

**(분청사기의 장식기법)** 분청사기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장식기법이 아주 다양하고 또 그것들을 적절하게 함께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표현법을 만들어 냈다는 점이다. 고려시대 청자와 같이 일정한 원칙과 규범 아래 계획된 절차에 따라 제작되는 방식이 아니라, 제작 상황과 여건에 따라 새로운 표현방식을 만들어 내었고 그것도 제작시기와 지역에 따라 예상하기 어려운 독특한 제작 방식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현대인들 가운데 한국의 분청 애호가들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이런 다양성과 예상할 수 없는 표현방식에서 현대적인 미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분청사기가 처음부터 예상하기 어려운 자유로운 표현 방식이 시도되었던 것은 아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분청사기는 고려에서 조선으로 나라가 바뀌면서 사회와 문물제도의 변화와 함께 변형된 조선의 상감청자를 고려의 것과 구분하기 위해 새로 붙인 이름이다. 따라서 고려시대 마지막 단계의 상감청자와 조



(그림2) 청자상감죽학문매병, 12세기



(그림3) 분청상감연화어문매병, 14세기 말

선시대 첫 단계의 분청사기를 구분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첫 단계의 분청은 상감청자와 똑같은 장식기법을 쓰고 있다. 말하자면 그릇의 표면에 음각을 한 후 백토나 드물게는 흑토를 메워 넣는 전통적 방법이다. 대부분 선으로 표현하지만 필요에 따라 면상감도 한다. 그러나 일정한 틀이 있는 원, 구름, 국화꽃, 여의두문과 같이 작은 단위 문양을 여러개 반복해서 새길 경우 도장을 만들어 찍는 방법을 12~13세기부터 개발하여 사용해 왔는데 이런 인화상감기법의 비중은 고려시대보다 높아졌다.



(그림4) 청자퇴화음각문주전자, 고려 12세기

선과 면상감, 그리고 인화상감은 먼저 음각을 한 후 백토를 메워 넣는 순서로 문양을 넣게 된다. 그런데 분청사기에는 백토를 먼저 쓴 후 음각이나 박지를 하여 문양을 표현하거나 백토위에 철사로 그림을 그리는 기법도 있다. 백토를 먼저 분장한 후 장식하는 방법은 이전에는 드물게 사용되었던 방법이다. 문양을

넣을 부분에 백토를 바른 후 문양 면을 긁어 내어 백색 바탕에 청자색 문양이 나타나도록 조작한 것으로 퇴화(堆花)기법 중에 하나였다. 물론 이 퇴화 기법이 그대로 계승되어 분청의 기법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분청사기의 경우 백토를 먼저 바르는 백토 분장기법은 면상감을 하거나 인화상감하는 과정에서 편법으로 개발된 새로운 것으로 독창적인 기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분청은 백토를 상감하는 상감분청계통과 먼저 백토를 바르는 분장분청 계통으로 나눌 수 있게 된다. 상감분청계통에는 선, 면 상감기법과 인화상감기법이 있고, 분방분청계통에는 박지(狎地), 조화(雕花)기법과 철화(鐵畫)기법 그리고 문양을 넣지 않고 백토만 바른 귀얄기법과 덤벙기법이 등이 있다.

### (가)상감분청계통

상감분청계통은 기법과 조형 요소가 고려 상감청자의 전통을 계승하고 조선적 변용을 거친 것으로 분청 가운데 가장 보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상감청자와 비교하면 파격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생략과 과장이 진행되어 자칫하면 원래의 모델을 연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화의 폭이 크다. 그러나 상감청자의 기본 요소인 회화적 표현과 장식적 요소가 공존하며 분장분청계통에

비해 태토와 유약은 물론 기형도 우수한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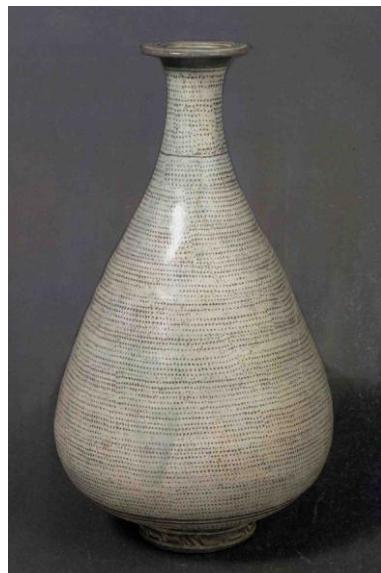
### 1) 상감분청

상감분청과 상감청자는 구분하기 어려운데 보는 사람의 판단과 기호에 따라 상감청자 또는 상감분청이라고 말할 정도로 같은 계통에 속하기 때문이다. 특히 문양 소재와 표현 방법에서 눈에 띠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서 조선 15세기 초기 까지 상감계통은 구분이 모호한 편이다. 그런데 15세기 전기에 들어 서면서 소재와 표현 방법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상감청자의 중요한 문양 소재였던 연화문, 포류수금문, 운학문 등이 퇴화하는 한편, 선상감 중심에서 면상감이 많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게 된다. 상감분청은 15세기 중기부터 면상감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인화상감과 결합하는데, 이때 유약과 태토의 질이 우수한 작품이 많다. 면상감은 문양의 단위가 커지면서 생략과 과장이 진행되는 한편 극도로 단순화되면서 질적으로 쇠퇴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그림5) 분청인화연당초문매병, 14세기 후반

### 2) 인화분청



(그림6) 분청상감인화승렴문병, 15세기

인화기법은 도장으로 찍어 음각으로 만든 후 백토를 상감하는 방법이다. 조선시대 분청의 최대 소비처는 수도이며 특히 중앙 관청과 연관된 곳이다. 그런데 15세기 초기의 분청사기는 전국 각지의 제작소에서 만들어 관청에 공급하기 때문에 조선이 채택한 표준화 통일화 방법은 문양을 새길 때 예외성이 없는 인화분청을 감독 제작하여 중앙에 바치는 것이었다. 실제로 중앙에서 선정한 몇 개의 인화분청 모델을 전국 각지에 보내 엄격하게 감독, 제작해서 우수한 수준의 분청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중앙 관청마다 분배의 편의를 위해 분청 그릇에 관청의 이름을 새기거나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생산을 독려할 목적으로 그릇 밑에 제작자의 이름을 쓰게 했던 기록 등은 조선이 우수한 제품을 받아 들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사실을 알게 해 준다. 인화분청은 이때부터 수준을 높이고 안정된 생산체제에 들어섰다. 도장의 단위가 작아지고 그릇에 빽빽하고 반틈없는 인화상감이 만들어진 것이다. 특히 이 경우 관청 이름과 제작자의 이름이 새겨진 예가 있어서 인화분청의 절정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화분청은 계속 제작될 수 없었다. 인화분청을 주로 공납받아 쓰던 중앙관청이 분청 대신 백자로 품목을 변경한 것이다. 조선 정부는 고급도자기 생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백자의 유행으로 소비자이 취향이 바뀌는 현실적 상황 변화에 적극 부응하여 정부가 직접 백자를 생산하는 체제로 근본적 제도를 바꾼 것이다. 그 결과 전국에서 인화분청을 생산할 필요도 없게 되었고 정부의 감독도 없어지게 된다. 인화분청은 생산량이 빠르게 줄어들고 질이 떨어지게 되었다.

#### (나) 분장분청계통

분장분청계통도 고려 상감청자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조선시대의 감각으로 변한 상감분청 가운데 일부를 선별하여 독자적으로 발전시켰다. 단순화되고 생략이 진행된 문양의 대부분이 상감 분청을 모델로 하고 있어서 그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데, 특히 면 상감 문양과 박지 문양이—장식 기법은 다르지만—시각적으로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은 양자간의 밀접한 관계를 충분히 설명해주는 것이다.

상감분청계통의 경우 태토가 비교적 정선되어 있지만 분장계통의 태토는 거친 편이다. 문양을 새길 때에도 상감과 인화는 일정한 수준의 기술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박지나 철화기법은 아주 짧은 시간에 다량 제작이 가능한 간편한 기법이다. 태토의 질이 낮고 거칠어서 백토를 분장하여 표면을 정갈하게 보이게 하는 방법을 택했고 또 질이 낮은 만큼 정교한 상감보다 간편하고 손쉬운 박지나 철화기법을 선택했다.

##### 1) 박지분청, 조화분청

박지와 조화기법은 분명히 선을 긋기 어려운 관계에 있다. 대체적으로 선후 관계에 있지만, 박지문의 경우 다소 체계적이며 복잡한 경향이 있으나 조화문은 이를 더 단순화시키고 단위 문양을 크게 확대시켜 전면에 꽉 차게 하려는 경향이 있다. 태토의 경우도 상감분청보다 박지분청이 떨어지며 조화분청은 다공질(多孔質) 도기에 가까울 정도로 거칠은 편이다.



(그림7) 분청조화류문장호, 15세기후-16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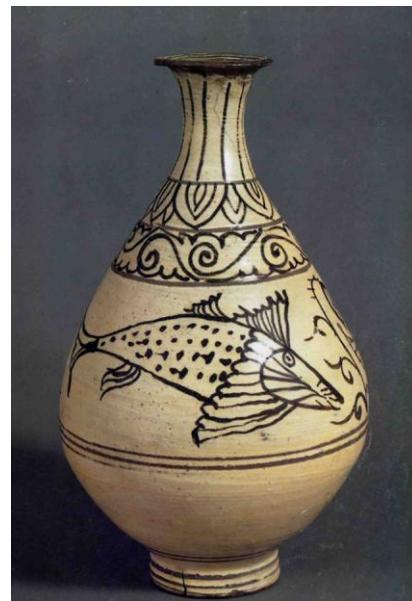
(그림8) 분청모란박지문호, 15세기

박지분청의 문양은 면 상감과 유사하다. 예를들면 모란꽃의 경우 면 상감은 넓은 면적의 모란꽃과 모란잎 전체를 음각하고 굽어내고 백토를 모두 메워 넣는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박지는 백토를 바른 후 모란의 배경에 백토를 굽어내고 모란잎 등의 윤곽은 음각으로 굽어 내는 간편한 조작만으로 시각적 효과는 상감과 비슷해 보이게 된다. 어려운 상감기법을 대신할 수 있는 간편하면서 완성도 있는 대체기법으로 사용했다.

조화는 박지 보다 한 단계 더 간편화된 기법으로 박지에서 여백을 굽어내는 과정이 생략되고 선묘(繡描)만 쓰는 방법이다. 희색 바탕에 단순한 음각 선만 쓰기 때문에 선의 윤곽이 선명해지고 적은 노력으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 문양을 단순화한 추상적인 이미지로 기물에 시문하여 회화적인 면을 보인다.

## 2) 철화분청

철화기법은 백토로 전면을 빌라서 마치 백색 그릇 같이 만든 후 묵직하고 굽은 붓으로 간단한 문양을 빼른 속도로 그려낸 것이다. 대체적으로 태토는 거칠은 편이며 흑갈색을 띠는



(그림9) 백유흑회모란문병, 북송 자주요, 11~12세기

다공질이어서 전체에 백토를 분장하여 태토와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했다. 백색의 그물에 검은색에 가까운 흑갈색 철화문양이 주는 강한 인상과 숙련된 솜씨로 훑힐 그려낸 몇 줄 되지 않는 간결한 문양선이 조화되어 있다.

### 3) 귀얄분청, 덤벙분청



(그림10) 분청귀얄문병, 16세기



(그림11) 분청덤벙문병, 16세기

백토를 바르기 위해 쓰는 거칠고 성근 귀얄풀로 만 듯 봇 이름을 그대로 붙여 귀얄분청이라고 하는데, 백토만을 바르고 별도의 장식이 없는 것을 말한다. 분장분청계통에서 이러한 귀얄기법으로 분장을 한 후 박지나 철화 장식을 하는 것이 순서이지만 이 경우 분장만 하고 마무리한 것이다. 또한 태토도 거의 백색에 가까운 것도 있어서 단순화시키려는 요구와 겉보기에 흰색 그릇(백자)을 나타내려는 요구가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부분 백토를 바를 때 물레가 회전하는 상태에서 발라 귀얄을 흔적이 수평으로 나지만 드물게 분자국을 불규칙하고 거칠게 내어 나름대로 문양의 효과를 기대한 경우도 있다.

귀얄분청은 15세기 후기 상감분청계통이 사라지는 한편 박지기법이 조화기법으로 단순화되는 시기에 문양을 그리지 않는 단순한 그릇으로 만들기 시작하여 조질화되면서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에 소멸하게 된다. 반면 덤벙기법은 분청의 마지막 단계에서 표면을 백색으로 만들려는 요구에 따라 제작된 것이다.

#### 4\_ 조형적 특징

분청사기의 특성은 제작방법에서 오는 다양한 표현기법에서 나온다. 도자공예에서 제작방법은 도자기를 양식적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된다. 분청사기는 제작자의 직관성, 자유스러움 등 서민적 미감이 내재되어 있으며 표현양식은 정형화, 양식화 되지 않은 특징이 있다. 이는 현대미술의 표현 양식과 상통되는 부분이다.

**(실용자기적 기형)** 분청사기는 국가에서 도자기의 사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끌으로서 다양한 계층에서 소비되고, 다양한 지역에서 생산되었다. 따라서 기형의 종류도 다양하게 제작되었다.

분청사기는 주로 일상용기에서 제례용기까지 제작되었으며 생활전반에서 사용되었다. 초기의 분청사기 기형은 매병처럼 고려청자의 기형과 흡사한 것이 많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생활용기로 발전한 항아리, 병, 사발, 접시 같은 평범한 형태로 제작되었다. 그리고 청자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장군, 자라병, 편병 같은 특수한 병의 종류가 많고 또한 실용적인 그릇이 대부분이지만 격식이나 형식에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제기(祭器)로도 제작이 되었다.

이와 같이 분청사기는 기형에서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기형은 대부분이 고려 말 청자의 기형이 바탕이 되고, 그 위에 생활용기로 널리 제작됨에 따라 실용성을 가미한 풍만하고 자유분방한 형태로 안정감 있는 특징을 보인다.



(그림12) 분청덤벙 제기, 16세기



(그림13) 분청조화문병, 15세기

**(문양의 상징성과 추상성)** 분청사기에 서 보이는 공통적인 특징은 활달한 문양장식이다. 이는 현대 서양미술이 추구하는 단순하고 간결한 구성으로 강한 개성을 표출하는 표현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이 분청사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분

청사기의 장식문양은 그 디자인에서 규격의 제한과 규제가 없었으며, 연판, 당초문, 물고기 등의 사실적인 문양도 단순하게 장식되어 현대미술과 상통하는

현대적 미감과 예술성이 발휘되고 있는 것이다.<sup>19)</sup>

20세기의 저명한 도예가 였던 영국인 베나드 리치는 미국 알프레드 도자대학에 가서 기념강연을 하면서 20세기 현대도예가 나아갈 길은 조선시대 분청사기가 이미 다했다. 우리는 그것을 목표로 해서 나가야한다. 라고 말했다.<sup>20)</sup>



(그림14) 조화수조문편병, 15세기

분청사기는 자유분방한 조형미와 민예적인 문양의 특징 때문에 ‘가장 한국적인 미를 간직한 민족의 자기’로 미술사가들에 의해 오래전부터 평가되어 왔다. 15세기 전기에는 청화백자의 제작은 거의 없었던 반면에 백자문양으로 명나라 풍의 당초무늬가 흑상감기법으로 백자에 시문되고 있는 점에서 분청사기, 조선 초기 상감백자, 명 청화백자는 서로 주고받았다.<sup>21)</sup> 이러한 과정은 모방에서 변용 단계를 거쳐 독자적인 영역을 만들어 갔다.

분청사기에서는 구름, 용, 새 등으로 하늘을 표현하였다. 지상 세계와 구별되는 신성한 곳으로 용이 인간을 호령하던 권위적인 하늘의 모습을 버리고 인간적인 모습을 표현한다. 속도감 있는 귀얄분청사기에서는 하늘의 장엄한 분위기를 표현하고 덤벙문양에서는 백토물을 입힌 하늘의 자유로움과 그릇 본래



(그림15) 분청박지연어문

의 지상의 색깔이 조화를 이루어 하늘과 땅을 표현한다. 물에 관련된 문양에는 연꽃, 물고기 등이 있다. 연못에 편 연꽃 등이 자유롭게 표현되며 물고기는 정겹고 해학적이다. 분청사기에 나타난 물고기는 자연을 여유롭게 즐기고자 한 선비들과는 달리 세속적 욕구를 성취하고자 하는 민초의 염원이 담겨있다. 한 쌍의 물고기는 부부애, 물고기떼는 자손 번창, 물고기 중에서도 주로 잉어를 그려 넣었는데, 잉어

19) 나선화, 도기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 도자기의 흐름, 재림법인세계도자엑스포, 2004, 111-112쪽

20) 유흥준, 윤용이, 알기쉬운 한국 도자사, 학고재, 2002, 37쪽

21) 강경숙, 한국도자사의 연구, SIGONGART, 2007, 142쪽

는 입신출세의 욕망을 담고 있다. 무모한 욕심이 아닌 죄짓지 않고 소망을 이루고자 했던 민중들의 소박한 염원이 담겨있다.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자유분방하게 표현된다. 다양한 나무, 모란, 연꽃, 인물, 가옥, 베드나무, 매화 등 구체적인 것에서부터 추상적인 것까지 다양하다. 이렇듯 분청사기의 문양에서 조상들의 자연에 대한 친밀함과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삶을 찾아볼 수 있다

**(분청사기의 직관적 특성을 일본 다인들의 평가)** 일본 다인들의 분청사기를 예술적, 철학적으로 사랑한 사람들이다. 일본의 15세기 무로마치시대에는 일본 특유의 미의식의 세계가 확립되어던 시기이다. 그 당시 그들의 미적 목표는 적막함, 쓸쓸함, 스산함, (凍, 寂, 枯)의 미학 이었다. 연극의 노(能), 음악의 렌가(連歌), 차(茶の湯)와 가장 잘 어울리는 다완은 조선의 분청사기 였다. 욕심 없는 무심한 경지에서 만든 조선의 분청사기 막사발에서 그들이 추구하는 미학을 찾고 발견했다. 일본의 성주는 자신의 작은 성 하나와 분청사기 다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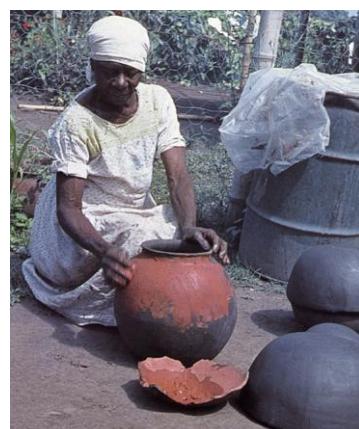
맞바꿨다고 한다. 그들은 분청다완을 고려다완이라 불렀다(중국 명나라 물건을 당물이라고 말한 것 같이) 분청다완은 모모야마시대, 에도시대를 거치면서 적막의 미가 와비, 사비의 미학으로 나아가면서 분청을 더욱 좋아하게 된다.



(그림16) 분청귀얄대접, 16세기

## 5\_타 문화 유사 도자와의 비교

분장기법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 장식기법이다. 화장토를 이용한 장식기법은 기원전부터 사용되어 왔다. 안데스의 토기를 비롯해 멕시코나 과테말라, 코스타리카의 토기에서도 화장토 분장 장식을 한 유물이 발견되었다. 유약이 생겨나기 이전부터 화장토는 동서양의 서로 다른 문명에서 동시에 사용되어져 왔고, 화장



(그림17) 콜롬비아 분장토기의 제작과정

토라는 분장백토는 문명이 생겨나는 그 순간부터 오늘날까지 그 재료의 속성을 잊지 않으면서 현대 도예 속에 정착한 하나의 보편화된 재료라 할 수 있다. 화장토가 도자역사상 일반화된 재료로 정착된 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우선 다른 문화권의 영향을 받는 과정에서 모방을 통한 유사기법이 생겨났다고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류가 오랜 세월을 유사한 작업환경 속에서 흙과 유약이라는 기본재료로 작업하는 과정을 통해 화장토 기법이 여러 곳에서 자연스럽게 개발된 것으로 생각된다.<sup>22)</sup>



(그림18) 두개의 주동이가 있는 용기-페루, 2~5세기

**(중국 자주요 자기)** 화장토를 사용하여 도자기를 장식한 것은 중국 육조(六朝) 후기인 6세기 월주요(越州窯)에서 최초로 시작되었다. 그 후 당시대가 되면서 백자와 당삼채의 바탕을 만들기 위해 순도높은 백토를 바른 것이 일반화되었다. 만당(晚唐)에서 오대(五代)에 걸쳐 화북지방 일대의 자주요(磁州窯), 형주요(邢州窯), 정요(定窯) 등지에서 백자에 가까운 것을 만들기 위해 회색의 태토에 얇게 화장토를 바르고 투명유를 써운 백지투명유도기를 만들었다.

또한 이 백화장토를 벗겨내거나 적토를 상감하는 장식법이 오대 말기부터 북송(北宋) 시대 초기인 10세기 후반까지 자주요에서 개발되어 화장토기법이 문양표현의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발전하였다.

북송후기인 11세기가 되면서 자주요는 백화장토 위에 한번 더 적화장토를 바르고 그 적토를 벗겨내는 방법으로 백화장토를 그대로 살린 후 유약을 바르는 기법을 개발하였다. 그 후 백화장토는 조악한 태토를 덮는 삼채도와 백유도기를 중심으로 행해졌으나 자주요의 것만큼 의장표현이 경지에 오른 것은 없다.

특히 자주요에서는 기법의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 화장토 이용기법으로 백유



(그림19) 동백문항아리 북송 자주요, 11세기

22) 곽수령, 송대의 민간도자기 자주요와 조선 분청사기의 연관성에 관한 소고

각화기법(白釉刻花技法)과 백유획화기법(白釉劃花技法), 백유유하흑채화기법(白釉釉下黑彩繪畫技法), 백유유하장채화기법(白釉釉下鬱彩繪畫技法), 진주획화기법(珍珠劃花技法) 등은 조선 분청사기와 장식면에서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다.

자주요의 태질은 조질이고, 태토색 역시 비교적 짙은 색이다. 이 단점을 감추기 위해 태토 위에 한 겹의 화장토를 바른 후 투명유를 시유한 것이 마치 분청사기와 흡사하다. 태토질의 단점을 감추기 위해 화장토로 장식을 했다는 점에서 자주요 자기와 분청사기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1) 백유각화기법(白釉刻花技法)과 백유획화기법(白釉劃花技法)

자주요는 각화 장식기법은 뾰족한 대나무 도구를 이용하여 선으로 문양을 표현한 다음, 문양을 제외한 부분의 여백을 파내어 화장토 장식으로 표현하였다. 백유각화기법은 무늬 이외의 백토부분을 긁어내는 조선의 분청사기의 박지기법과 유사하다. 백유획화기법(白釉劃畫技法)은 백색 화장토를 바른 기물 위에 뾰족한 도구를 이용하여 선으로 문양을 표현하는 기법인데 이 역시 분청사기의 조화기법과 비슷하다.



(그림20) 백유획화모란문병 북송, 11~12세기

### 2) 백유척화흑채기법(白釉剔花黑彩技法)

백유척화흑채기법(白釉剔花黑彩技法)은 백유척화기법(白釉剔花技法)과 매우 유사하다. 우선 기물 위에 백색 화장토를 바르고, 또 한 겹의 흑색 화장토를 바른 후 어느 정도 말랐을 때, 뾰족한 공구로 문양을 그려낸 후 문양 이외의 흑색 화장토 부분을 도구로 긁어내면 흑백이 분명한 시원스런 느낌을 주는 문양이 생긴다. 이렇게 밝고 선명한 흑백대비의 조화를 이룬 독특한 느낌의 예술이 바로 자주요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 기법은 분청사기에는 없는 기법이지만 백색 화장토를 바른 후에 흑색 화장토를 한 겹 더 바르는 차이가 있고, 여전히 분청사기 박지기법과 유사하다.

### 3) 진주획화기법(珍珠地劃花技法)

진주획화기법(珍珠地劃花技法)은 백유각획화기법(白釉刻劃花技法)의 일종인

데, 이 기법은 15세기 중반에 인화문을 촘촘하게 찍어 표현하는 방식과 매우 흡사하다. 또 분청사기의 경우 동그란 무늬들을 찍은 것으로 둋자리 문양이라고도 부르는 승렵문(繩簾紋)과 매우 흡사하다. 이 기법의 작품들이 가장 많이 생산된 곳으로는 북송(北宋) 시절 하남성의 등봉요(登封窯)를 꼽을 수 있는데, 이곳에서 제작된 ‘쌍호랑이문양병’이 진주지획화기법의 대표작이다.

#### 4) 백유유하흑채기법(白釉釉下黑彩技法)

백유유하흑채기법(白釉釉下黑彩技法)은 자주요 자기의 대표적인 장식기법으로 백유 바탕에 검은색과 갈색의 안료로 문양을 그리고 투명유를 입혀 구워낸 것이다. 뚜껑이 있는 단지와 큰 완(碗)에서 가장 많이 보인다. 문양 소재는 인물, 화초, 백로, 기러기, 갈대 등이 사용되었다. 이들 소재는 서민생활이 지나고 있는 농후한 민간 색채를 잘 표현하고 있다. 분청사기의 철화기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분청사기와의 비교 분석)** 자주요와 분청사기는 관요의 직접적인 간섭을 받지 않고 제작된 민예자기라는 점과 태질의 단점을 감추기 위해 화장토로 장식을 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선으로 문양을 표현한 다음 문양을 제외한 부분의 여백을 파내어 화장토 장식으로 표현하는 백유각화기법(白釉刻花技法)은 무늬 이외의 백토부분을 깎아내는 조선의 분청사기의 박지기법과 유사하다.

	
백유당초문매병(白釉唐草紋梅瓶) 남송(南宋), 자주요(磁州窯), 높이 31cm	분청조화어문병 조선시대 15-16세기

또 백색 화장토를 바른 기물 위에 뾰족한 도구를 이용하여 선으로 문양을 표현하는 백유획화기법(白釉劃花技法) 역시 분청사기의 조화기법과 비슷하다.



이와 함께 진주지획화기법(珍珠地劃花技法)의 작은 원형의 무늬들은 분청사기의 승려문(繩簾紋)과 매우 흡사하다.



이 외에도 백유유하흑채기법(白釉釉下黑彩技法)은 분청사기의 철화문에 영향

을 주었을 개연성이 큰데, 이 철화문 기법은 조선 청화백자의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중요한 기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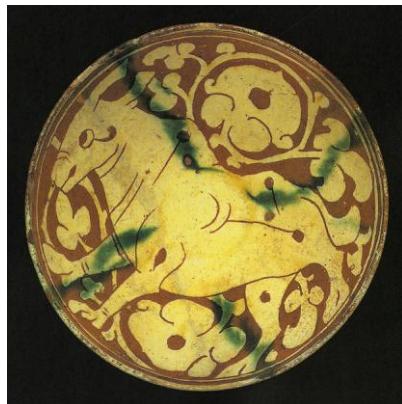


그릇의 표면 전체에 백색의 화장토를 태토의 색이 보이지 않도록 완전히 바르고 말린 후에 다시 한번 유약을 발라 구운 것이다.



**(그 밖의 유사 사례)** 스페인은 지리적으로 이슬람 세계와 기독교 세계를 연결하는 위치에 있다. 8세기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이 스페인을 유럽 최초의 산화주석유도기 생산국으로 만들었다.<sup>23)</sup> 이슬람의 스페인 정복 후 15세기까지 이슬람의 지배를 받으며 발달한 이슬람의 도기문화를 수용하였다. 녹갈색<sup>24)</sup>을 사용하여 동물문양, 식물문양, 기하학적 문양, 등을 전면에 장식한 도기들에서는 이슬람의 자유분방한 장식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스페인도자의 이슬람 특징은 15세기경 이스파노 모리스코(Hispano Morisco)<sup>25)</sup> 양식에서 절정을 이루게 된다.

이스파노 모리스코는 ‘스페인 무어양식’이라는 뜻으로 그 이름에서 보듯이 스페인과 이슬람 문화의 결합을 알 수 있다. 주로 사용된 장식법은 금속산화물을 사용하여 도자 표면에 금속과 같은 금속성 광택을 내는 러스터기법<sup>26)</sup> 페르시아에서 전래된 정색 안료를 함께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 스페인 도자는 이슬람요소와 기독교적인 요소가 공존하여 동서양적 요소의 결합으로 함축할 수 있다. 조형적인 미와 실용적인 요소가 잘 결합되어 있다. 15세기경 스페인은 이미 유럽도자문화의 중심이 되었으며 활발한 해상무역을 통하여 스페인 도자가 유럽국가에 전래 되었다. 특히 스페인 도자는 이태리에 전래되어 근



(그림21) 샹플르베칠보장식의 슬립웨어발,  
이란, 12~13세기



(그림22) 녹갈색 사발 파테르나, 13-14세기



(그림23) 달린발-이탈리아, 15세기

23) 남기명, Spanish ceramics, 재단법인세계도자엑스포, 2003, 16쪽

24) 산화주석으로 만든 푸른색 유약으로 도기 표면 위에 덮어씌운 느낌이 나는 유약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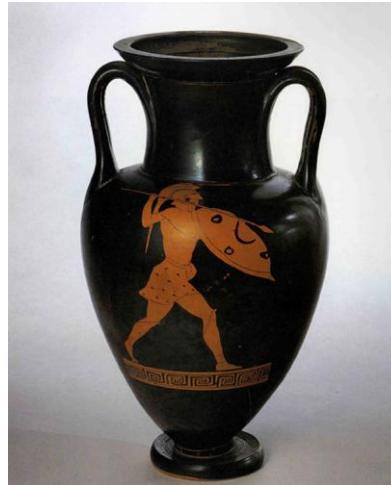
25) 모리스코(Morisco)는 1492년 국토회복 운동 후 기독교로 개종하고 그들 고유의 종교와 관습을 포기한 채 스페인에 거주했던 무데하르인을 말한다.

26) 러스터 기법은 유약의 표면에 금속성 안료를 얇은 피막 형태로 덮어 화려한 색상으로 장식하는 기법을 말한다.

세 도자기 추축을 이루고 있는 마울리카의 성립에 영향을 주었다.

**(그리스도기)** 기원전 7세기가 되면 아테네와 코린트가 그리스 도기의 두 중심이 되어 형태가 정제되고 고아한 것들이 계속 만들어졌다. 그러한 형태는 유럽의 전통 속에서 나중까지도 살아남게 된다. 특히 이 시대에는 불그스름한 바탕 위에 문양을 검정색으로 실루엣처럼 그리고 뜻으로 윤곽을 새긴 흑화(黑繪)도 기<sup>27)</sup>, 또 이것과는 반대로 문양을 제외한 바탕을 빈틈없이 검은색으로 칠한 후 문양의 테두리를 검은 선으로 두르고, 게다가 인물상들은 그리스 신화를 비롯하여 자신들의 생활을 모티브로 하는 것들이어서 회화 유물이 적은 그리스 생활양식을 엿볼 수 있는 좋은 단서가 된다.

그 그릇들은 형태는 아름다웠지만 기법 면에서는 도기에 유리질의 유약을 입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그리스인들은 산화철을 많이 함유한 도토에 숯을 섞어 그릇을 빚은 후에 신맛이 강한 와인을 그 도토에 넣어 반죽한 안료로 문양을 그리고 구워냄으로써 반들반들한 검은색 그리스도기 특유의 적회나 흑회도기를 만들어 냈다. 이것도 일종의 화장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sup>28)</sup>



(그림24) 두전사가 장식된 적회식 암포라  
그리스 기원전 5세기



(그림25) 테라시질리타 사발-이탈리아, 1세기

27) 고대 그리스 도기의 채색법의 일종. 기원전 7세기 아테네에서 일어난 붉은색 태토에 검정색으로 회상각선을 그리는 문양기법이다. 나중에는 적회도기로 바뀌었다.

28) 미스기다가토시, 동서교류사, 놀와, 2001, 33-34쪽

■  
제 3부  
종합

## 1장. 한국디자인 특성 개념 도출

우리 분청사기가 지닌 강점을 크게 심미적 측면, 기능적 측면, 조형양식적 측면, 역사문화적 측면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청사기는 회청색의 짙은 태토와 백색의 화장토, 그리고 고화도의 불길이 만들낸 독특한 재료적 미감을 가지고 있다. 분장기법을 통한 소박한 흙의 질감을 정감있게 살려내며 대표적인 한국의 미(美)로 평가 받고 있다.

둘째, 분청사기는 조형양식 면에서 탈획일화와 자유분방함으로 말 할 수 있다. 이는 분청사기가 민요적 성격의 제작환경과 전국 각지에서 지역의 고유적 특색을 가지며 제작된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이 장인의 개성이 반영된 자유분방하고 서민적인 도자기를 만들어 냈다. 분청사기의 이런 점이 현대적 미감과 상통되는 이유가 되었다.

셋째, 분청사기가 제작되면서 생활속의 보편적인 자기문화가 실현되었다. 분청사기의 제작은 관청과 민간에서 두루 사용되면서 생활속의 실용기로 자리잡았다. 또한 상감분청사기, 박지·조화분청, 철화분청, 귀얄, 덤벙분청사기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하게 제작되었다. 분청사기는 기물의 두께가 두껍다든지(이전의 청자는 금속기 형태를 모방하여 전의 두께가 얇아 깨어지기 쉽다) 전이 두꺼워 세척 시 파손을 줄일 수 있는 강점과 태토 속에 사질이 많이 함유되어 단단한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었다. 결국 분청사기는 실용적을 쓰일 수 있게 인간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작되었던 도자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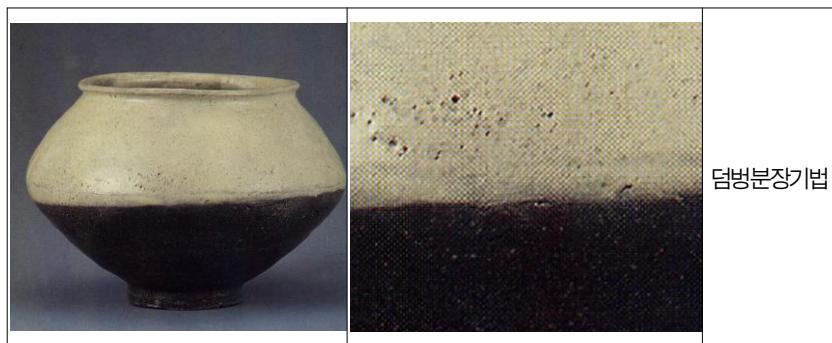
넷째, 분청사기는 청자의 전통위에서 계승, 발전되었다. 일례로 분청사기의 박지기법은 청자의 상감기법을 계승하여 실용적으로 활용한 경우이다. 박지기법은 청자의 역사감기법과의 연관성과 유사성이 있으며 이는 장식의 응용을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박지기법은 상감기법의 수고를 덜기(생산성) 위해 발전시킨 실용적인 장식기법이다. 분청사기는 청자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양식을 창조해 나갔으며 이는 전통의 창조적 계승으로 설명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분청사기의 특성은 이성적이고 명료한 결과보다 직관적이고 순정적 과정을 중시하는 한국인의 심성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확실히 한국인들은 차가운 이성보다는 따스한 정을 선호하고 획일화 된 틀보다는 역동적인 생명력을 중시한다. 분청사기는 바로 획일적인 틀을 거부하고 불완전함 속에서 생동하는 생명력을 포착하려 한다는 점에서 한국인의 기질과 상통한다. 분청사기는 그 당시 대중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제작된 도자기로 소수의 귀족

적인 성향이 아닌 널리 사용하는 민간의 생활용기로 제작, 사용되었고, 자유분방함과 형식에 억매이지 않은 장인의 감성이 묻어나는 표현양식으로 서민적인 취향의 우리나라의 대표적 도자공예양식으로 평가 할 수 있다.  
분청사기의 현대적인 조형요소를 다음과 같이 그림과 함께 정리하였다.

### 1\_회청색 태토와 백색화장토의 조화로움 속에 독특한 재료미 창출

		백토, 적토 상감기법
		박지기법
		귀얄분장 기법



## 2\_탈 획일화와 자유분방

'지역적 특색이 반영된 다양한 문화양식 속에 한국적인 미의 원형을 실현'



		철화기법
		귀얄기법

### 3\_ 보편적 실용자기문화의 실현

조선 사대부와 관청에서 사용된 상감분청사기.

박지 · 조화분청, 철화분청, 귀얄, 덤벙분청사기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민간의 실용기로서 생활속의 자기문화 실현.

		덕녕부명 관청용 인화분청 접시
		분청 제기



4\_상감청자의 계승 발전 : ‘전통의 계승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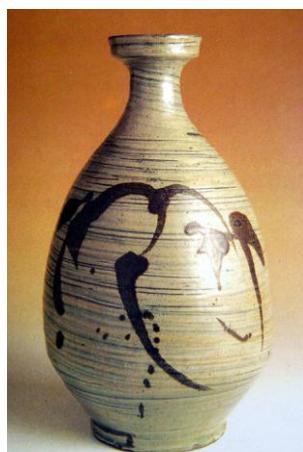


## 2장. 대표디자인 추천

### 1) 귀얄철화문병

하마다쇼지, 일본, 1930

근대 일본 도예계의 거장으로서 도미모토겐키치, 가와이간지로, 야나기무네요시 등과 함께 민예운동을 주도하며 조선의 도자를 만남으로서 질박하고 담백한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일본 중요무형문화재 민예도기 보유자이다. 조선의 귀얄 철화분청의 영향을 그대로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철화의 문양과 귀얄의 자국



(그림26) 귀얄철화문병 하마다쇼지  
일본, 1930

이 역동적이다. 당대의 도자기 예술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친 영국의 도예가 버나드리치와 수십 년 동안을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작업했다.

## 2) 철화분청문양의 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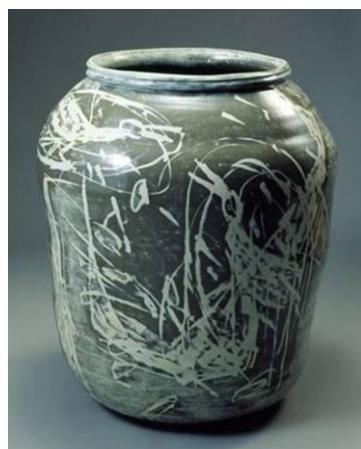
Bernard Leach, 영국, 1931



(그림27) 철화분청문양의병  
Leach Bernard 영국, 1931

영국의 도예가로 하마다쇼지, 야나기무네요시 등과 같이 일본의 민예운동에 영향을 주었으며 1920년 영국의 콘월주 세인트아이브에 가마를 설치하고 영국의 전통적인 슬립웨어(slipware)의 재현에 성공하였다. 조선 분청철화어문병의 영향을 그대로 보여주는 작업으로 밝은 색의 기면위에 짙은 색의 슬립을 칠한 후 문양을 긁어내어 철화분청에서 붓으로 그린 이미지와 조화기법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였다.

## 3) 신상호- 분청인화선상감조문호



(그림28) 신상호-선상감

분청의 자유분방하고 활달한 이미지가 생동감 있는 획의 선상감으로 안정감 있게 표현되었다. 음각선을 빠른 속도로 긋는 행위로서의 과정에서 선은 무심한 듯 역동적이며 작위성이 보이지 않는다. 면 곳을 응시한 새와 배경의 상감된 선들이 추상적인 이야기를 이끌어낸다.

## 4) 김용윤 -분청인화선상감문손잡이항아리

넓고 둥근 항아리 밑면의 안정감 있는 형태미가 분청도자의 전형적인 친근감과 편안함을 주며, 성글게 시문된 듯한 인화문에 산의 능선 같은 굴곡이 있는

선들이 작품제목과 같이 봄날의 따뜻한 정취의 구선동설화를 연상시킨다. 숙련된 기술에서 우리나라에는 여유와 절제된 편안함을 느끼게 한다.



(그림29) 김용윤-인화선상감



(그림30) 박래현-인화상감

### 5) 박내현- 분청인화상감연어문접시

전통 민화적 요소를 현대 회화적 미감으로 재해석하여 구성한 장식적이며 회화적인 작품이다. 인화문의 장식적이고 섬세한 요소와 민화를 해체 재구성한 연꽃과 연어문의 조화가 새로운 인화분청의 가능성を感じ게 한다.

### 6) 윤광조-분청귀얄조화문항아리

맑은 백토분장과 귀얄자국 그리고 빠르게 그어낸 바람결을 상징하는 속도감 있는 선들은 오랜 경륜에서 나오는 조화분청의 정수를 보는듯하며 여백과 절제된 선들은 현대분청의 또 다른 세계를 엿보게 한다.

(그림32) 허상욱-박지기법



(그림31) 윤광조-조화기법



### 7) 허상욱-분청박지모란문항아리

박지분청의 특징과 미감을 군더더기 없는 필치와 적절히 분장토를 남기며 푸근하게 박지 된 여백의 자연스러운 조화가 더욱 자유로운 공간과 문양을 느끼게 한다. 적절하게 남겨진 자연스러운 박지된 바탕 면이 획일성으로부터 일탈을 이끌어낸다.

### 8) 이수종 – 분청철화문항아리

오랫동안 철화분청의 현대적 표현에 주력해온 작가이며 계룡산 철화분청의 학자이며 활달한 필치가 일필휘지의 철화 획으로 함축되어 표현되었다. 전채화면의 공간구성과 철채 재료의 특성이 손으로 성형한 자국을 그대로 살린 기면의 질감과 어우러져 작가의 깊은 내공을 보는듯하다.



(그림33) 이수종-철화기법

### 9) 윤광조–분청귀얄문삼각호

오랜 세월 분청의 세계를 넘나든 작가의 여유가 느껴지며 분청도자의 물성으로부터 해탈의 경지를 느끼게 하는 원초적인 작품이다. 가장 단순한 행위 거친 귀얄질에 의한 백토분장의 한획 한획이 바람과 비와 자연의 이미지를 느끼게 한다. 분청도자 표현의 자유로움과 추상성이 함축되어있다.



(그림34) 윤광조-귀얄기법

### 10) 정재효– 분청지두문사각합



(그림35) 정재효-귀얄기법

분청도자의 태토와 분장토 그리고 불의 조화로운 합일이 만들어낸 자연의 결정체이다. 자연의 재료를 활용하여 자연보다 더 자연스러운 결정체로 재탄생시켰다. 귀얄분청의 새로운 표현 가능성을 느끼게 한다.

### 11) 이강효 – 분청덤벙문제기

태토와 백토분장의 조화가 아름다운 기면의 아취를 만들어냈다. 다른 종류의 도자와 비교해서 분청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가 태토와 분장토의 조화에 의한 새로운 합일의 결과로서의 아름다움이다. 가장 따뜻하고 정감어린 분청도

자의 멋이다.



(그림36)이강효-덤벙기법



(그림37)윤주철-첨장기법

### 12) 윤주철-색분장토첨장문항아리

분청귀얄기법을 현대적으로 재창조한 결과이다. 분청토를 수백번 반복 칠하는 과정에서 한켜한켜 쌓여 만들어낸 새로운 조형의 결과가 흥미롭다. 전통의 이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연구가 현대적 도자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 13) 최성재-분청인화상감산수문도벽

분청인화문기법을 현대건축도자에 접목 한 예이다. 전통도자의 예술적, 기능적 요소들을 현대생활문화의 아이디어와 접목할 때 그 부가가치는 더욱 커질 것 이며 전통의 현대적 계승이 이루어진다.



(그림38)최성재-산수문전벽화인화상감기법

### 14) 김환기 -유화 제목-대화

분청승렴문도자의 무한하게 반복되어 이어지는 둥근 고리 이미지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이다. 하나하나 다르게 되풀이 되는 두겹 세겹 밖으로 둘러싸인 네 모난 점들이 모여서 우주의 이미지 혹은 억겁을 이어가는 일상의 반복이 거기 있는 듯하다. 가장 추상적이면서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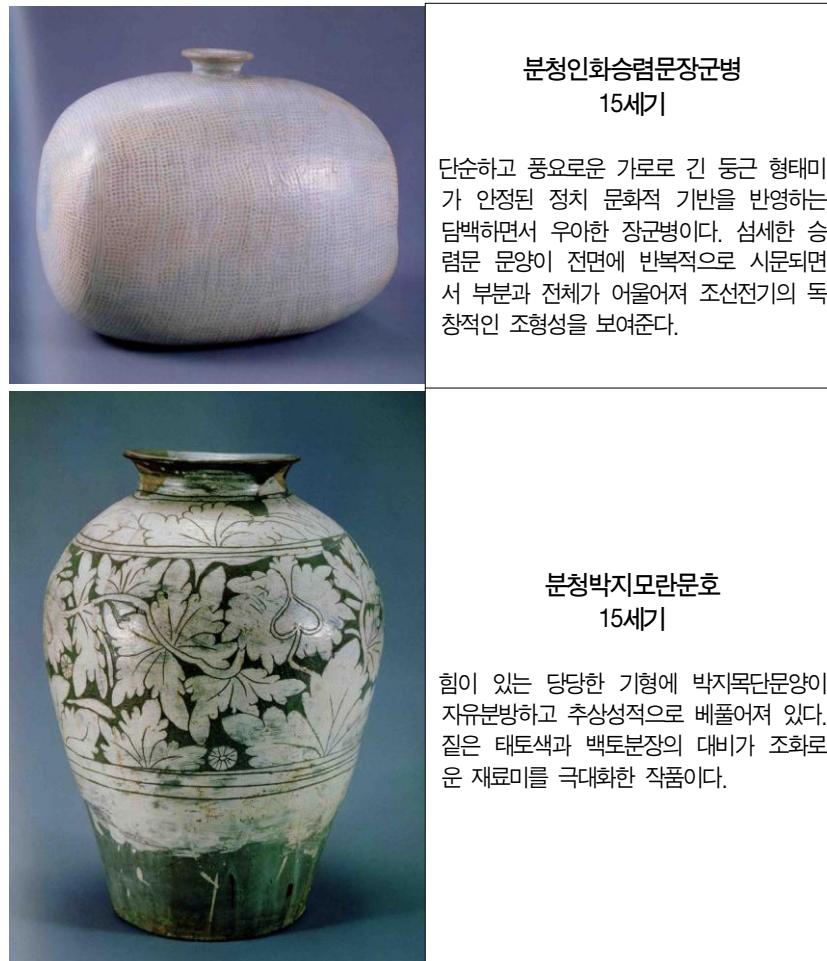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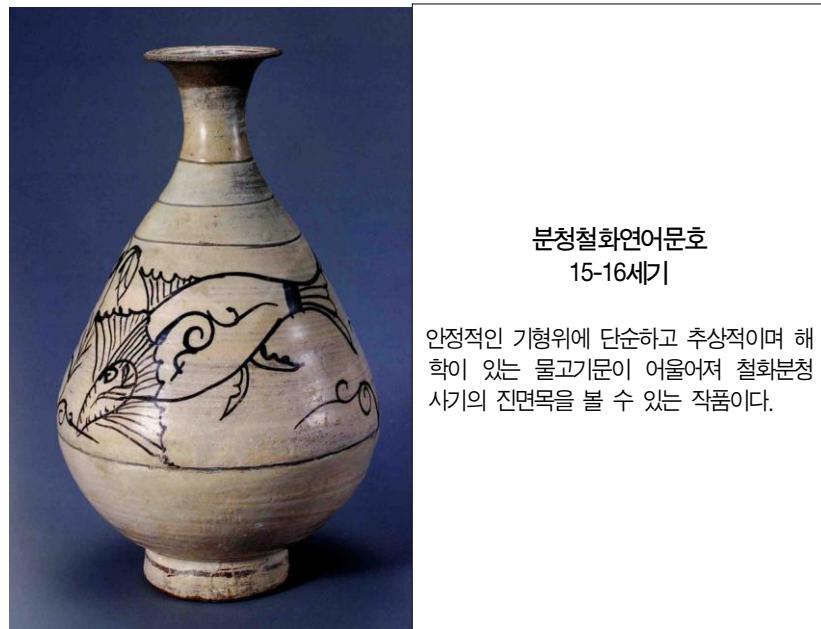
(그림39)김환기-유화

념무상의 절제된 흔적이다.

### 3장. 분청사기 추천

분청사기의 현대적 조형요소가 가장 잘 반영된 대표작으로 인화분청사기, 박지분청사기, 철화분청사기 각 1점씩을 추천하고자 한다.





분청철화연어문호  
15-16세기

안정적인 기형위에 단순하고 추상적이며 해학이 있는 물고기문이 어울어져 철회분청사기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작품이다.

**연표 1) 분청사기 기형에 따른 분류 연표**

구 분		매 병		항 아리			주 병			편 병			자 라 병
초기 (14세기 중반 ~ 15세기 초)	선,면 상감 기법												
	인화 상감 기법												
전성기 (15세기)	조화 기법												
	박지 기법												
	철화 기법												
말기 (15세기 후반 ~ 16세기 초)	귀얄, 덤벙 기법												

구분		장 군 병		주 자	제 기		대 접	접 시	발	합	마 상 배	기타 생활용기	
초기 (14세기 ~ 중반 15세기 초)	선,면 상감 기법												
	인화 상감 기법												
전성기 (15세기)	조화 기법												
	박지 기법												
	철화 기법												
말기 (15세기 후반 ~ 16세기 초)	귀얄, 덤벙 기법												